

농민의 풍우(風雨) 인식에 나타나는 지식의 혼종성: 『평택 대곡일기』(1959~1979)를 중심으로*

안승택**

이 글은 『평택 대곡일기』를 자료로, 비와 바람에 대한 농민의 민속지식이 어떻게 작동하면서 성쇠를 거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실행지식이 처한 혼종성의 상황이란, 민속지식이 전통과학지식이나 근대과학지식과 일정하게 중첩되면서 병존하며, 경향적으로 쇠퇴하면서도 근대과학지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근경 속에 되살아나는 양상이란 점을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민속지식과 전통과학지식의 혼종 양상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농(老農)들의 민속지식이 문헌적 근거 없이도 동북아 3국에 공통되어 나타나는가 하면, 문헌적 근거를 지니고 유통되던 전통과학지식으로부터 절연된 세계가 아니었음을 확인한다.

제3장은 출현 시기나 장소가 서로 다른 민속지식들 사이의 관계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공통의 특징을 확인한다. 이에 의해 일 년 농사의 장기적 전조가 되거나 즉각적으로 비를 부르고 물을 말리는 것으로 인식되는 농민의 풍우 인식이 모습을 드러낸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이 글의 모태적인 초고는 SSK 《개인기록의 사회과학》 연구팀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ressed Modernity in East Asia”(2015. 4. 14~16)에서 발표되었다. 이 글은 그 중 일부를 추려서 수정·보완하여, 지역문화연구소 제135회 집담회(2015. 5. 16) 및 한국문화인류학회 제53차 정기학술대회 “오감의 인류학”(2015. 5. 22)에 제출했던 발표문을 다시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민속지식과 근대과학지식의 혼종 양상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민속지식과 근대과학지식은 모두 나름의 한계를 지녔었고, 따라서 농민의 실행지식은 여러 지식체계들 사이를 오가며 구성되는 과정이었음이 확인된다.

〈주요개념〉: 자연인식, 민속지식, 전통과학지식, 근대과학지식, 실행지식, 혼종적 근대성, 가뭄

1. 머리말

이 글은 신권식 옹(1929년생)이 작성한 『평택 대곡일기』(1959~2005) 중 1959~1979년 기간의 분량을 주요 자료로 삼아, 자연현상, 특히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비와 바람에 대한 농민의 지식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① 비와 바람에 대한 그의 민속지식이 어떤 것이며, ② 그것은 소위 말하는 전통과학지식이나 근대과학지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③ 이 세 지식체계가 현대세계를 살아가는 그의 실행지식 속에서 어떻게 엮여드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차차 드러나겠지만, 이 글에서 풍우 인식의 혼종성은 그 변천과정과 거기에서 불거지는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위기의 산물 이면서, 동시에 그 변화와 위기를 견디며 뚫고나가는 (지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엔진이기도 하다고 이해된다.

비, 그리고 그 대립물로서의 가뭄이 농사의 결실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은, 그 구체적 양상에 대한 일반적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다. 그런데 흔히 간과되는 것은, 비와 가뭄만큼 바람 역시 중요하다. 실은 이들이 서로 결부된 현상으로 인식되고는 한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우순풍조(雨順風調), 즉 비와 바람을 나란히 놓고 그것들이 순하고 고르게 들어야 풍작을 이룬다는 표현은, ‘5일에 한 번 바람

이 불고 10일에 한 번 비가 와야 한다’는 뜻의 오풍십우(五風十雨), ‘비와 바람이 적절히 와야 한다’는 뜻의 호풍호우(好風好雨) 등과 함께, 풍년과 태평을 이루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예로부터 전해져 널리 퍼진 고언(古言)이다. 그 전적 상의 근거는 소동파(1037-1101)의 시구 “비가 순하고 바람이 고르면 백곡이 무르익으니(雨順風調百穀登)”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이 표현의 기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순풍조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마을공동체의례의 축문(祝文) 등에 자주 나타나는 등, 민간에서는 이를테면 상투화된 표현이다. 게다가 현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범용성이 커서, 고문헌 번역용례에서 여러 세밀하고 복잡한 한문표현을 우순풍조라는 한 마디로 뜻을 풀어버리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과연 어떤 비와 바람이 순조롭고 적절한 것인지, 사람들이 비와 바람을 바라고 기다리며 또 실제로 그것이 이르도록 하려는 염원 아래 의례(기우제 등) 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지식 체계를 발전시켜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비보다 바람의 경우에 더욱 복잡해진다.¹⁾ 위에서 아래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비와 달리, 바람은 양과 때 외에 사방 또는 팔방으로 개념화되는 다양한 향의 차원을 가지며, 게다가 비보다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람에 대한 이런 세부적 민속지식의 연구는 그간 국어학·인류학·민속학계에서 주로 어민의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홍순탁 1963; 장태진 1968; 이승녕 1970; 왕한석 1994,

1) 비와 바람이 얽혀드는 지식을 다루는 이 글은, 개인적으로는 한반도의 강수특성과 그것이 현장 농민의 민속적 농업기술체계의 전개, 농업기상조건인 인식, 일본 식민통치자들과의 조우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안승택 2009, 2010)의 후속작업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소홀히 다루는 한반도의 강수특성 및 그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검토는 그것들, 특히 후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단, 바람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의 세부적인 구분법이나 민속지식을 다룬 연구는, 필자의 과문함 탓인지 아직 접한 바가 없다. 혹은 바람에 비해 비에 대한 민속지식의 연구가 발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비를 둘러싼 사태가 바람만큼 복잡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

2009, 2010, 2012; 조숙정 2014). 이는 초기단계의 연구에서부터 어업과 바람의 관계가 대단히 직접적이라는 점에 착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홍순탁 1963: 83; 장태진 1968: 3; 이승녕 1970: 302). 이러한 경향 자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또 비와 바람의 관계에 대한 (반농반) 어민의 지식은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농민의 그것과 상통하기도 한다. 특히 농민의 그것에서도 나타나는 바, 바람과 기후변화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어민의 인식은 이 글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크게 참고가 된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농민의 바람 인식, 그리고 농사일 내적인 맥락과 바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남는 한계가 노정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와 관련한 거의 유일한 예외로는 왕한석(1994)의 농어촌 비교연구, 그리고 『한국의 언어 민속지』로 간행된 그의 거대한 연구 중 경기 강화(황청리), 부산 동래(안락동), 전북 고창(장두리), 경북 선산(신곡리) 등 농촌(또는 반농반어촌) 지역의 바람인식에 대한 분석들이 있다(2009: 34-38, 131-133, 2010: 224-226, 2012: 341-342). 그 요점을 정리해두자면, ① 농민의 바람인식은 어민에 비해 단순하며, ② 바람이름이 고유어보다 한자어인 경우가 많고, ③ 기후특성 및 그것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과 복합되어 인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특히 그는 ③과 관련하여 생생한 농민적 표현·속담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 국어학계가 주도했던 선행연구의 인류학적 보완으로서나, ‘농사일과의 복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나 크게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농사일과의 복합’이란 결국 바람이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기상현상의 전조로서 농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라고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와 바람의 상호결부 현상을 다루려는 이 글의 문제의식에도 크게 지침을 준다. 반면 그의 작업은 면접방식의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자료는 분류체계의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회고나 전언, 속담이 결합되는 형식을 띄고 있다. 또 농사와의 관련에

서도 사계절별(최선의 경우 월별) 특징 등 대세의 설명에 머무는 점도 다소 아쉽다. 따라서 날마다의 실제 기상현상 및 농사작업의 전개, 이에 대한 농민 자신의 나날의 불안과 소회, 일상생활 속 근대과학지식과의 교호(交互) 등을 추적하기에는 다소간 한계를 지니게 된다.²⁾

이 글은 경기 서남부 농촌의 맥락에서 일기라는 역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들 선행연구에 대한 비교와 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평택 대곡일기』(지역문화연구소 편 2007, 2008)에는 바람의 향, 양, 때와 관련하여 물을 말리거나 가뭄이나 비를 부르는 바람 등에 대한 기록자의 지식과 생각, 느낌이 다량으로 기록되어 있어, 농사일과 이들 자연현상의 관계를 다루는 자료로서 적합하다.³⁾ 이 일기가 기록된 현장인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는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후예들로 일대의 유력성씨인 고령신씨 문충공파의 동족마을이며, 기록자인 신 응 역시 그 후손들 중 한 명이다. 이 마을이 위치한 평택평야는 경기지역의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이지만, 안정된 논농사지대로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73년의 아산만방조제 완공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간척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습지들이 경작지로, 그리고 다시 수리안전담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고잔리 역시 1973년 이전까지는 2, 3년 주기로 찾아오는 상습적 가뭄피해에 시달렸고, 홍수 및 방조제 붕괴에 따른

2) 조숙정(2014)은 전북 부안지역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 어민의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바람에 대한 표현과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점까지 상세히 기록한 바 있다. 비록 대상이 어민과 농민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는 농민의 생활일기를 역사민족지 (Comaroff and Comaroff 1992) 자료로 활용하려는 이 글의 구상을 마련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외, 본격적인 연구물이라기보다는 아주 간략한 노트의 성격이지만, 『농업속담사전』에 실린 농업관련 속신(俗信)을 뽑아 자신의 농사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시도한 김재호(2011)를 참조할 수도 있겠다.

3) 이하 『평택 대곡일기』 및 그 기록자인 신 응에 대한 개괄적 정보는 이 두 책의 해제, 그리고 지역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현지조사의 면접기록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평택 대곡일기』를 검토한 선행연구로는, 민속학 작업으로 원보영(2009)과 안혜경(2011), 사회사 작업으로 김영미(2012, 2013), 과학사 작업으로 문만용(2013)이 있다. 이 중 특히 원보영과 김영미의 연구는 일기자료 분석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고잔리 현지조사와 신 응 면접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평택 대곡일기』 해제와는 또 다른 성격의 일기 외적 현장감까지 확보하고 있다.

범람피해나, 가뭄·만조(滿潮)·강풍 시 특히 위협이 되는 소금피해 또한 고질이었다. 일기 속 기상현상의 기록은 이런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삼는다.

『평택 대곡일기』의 기록자인 신 응은 고잔리 대곡(大谷) 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어려서 한문교육을 받고 1943년 일제 치하의 청북국민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후 세 차례 상급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신병(身病)과 전쟁으로 모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였다. 1955년 군 제대 후 낙향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이듬해 혼인하면서 물려받은 논 닷 마지기가 이후 농업의 밑천이 되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는 책과 신문 등 활자매체를 놓는 일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적어오고 있다. 또 시를 짓고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서예부문에 입선하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도 있다. 이런 성실성과 노력, 개인능력과 사람 됨됨이에 더하여 고령신씨 동족집단의 위세를 배경으로, 그는 지역사회와 문중집단, 유림조직의 유력인물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기록은 이런 개인특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글은 농민의 풍우 인식이 때로 민속지식 범위 안에서, 때로 그 경계 너머의 다른 지식들과 혼종되어, 또 때로 그와 거의 아무 상관없이 작동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향해 전개된다. 신 응의 기록 속에는 기원과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종류의 지식들이 섞여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네 종류의 범주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루는 비와 바람에 대한 민속지식(folk knowledge)이란, 이들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방식, 그리고 이들이 다른 기상현상 및 농업생산과 ‘복합되는’ 방식에 대한 농민의 지식을 말한다. 이는 관련된 생각, 느낌과 표현, 용어들까지 포함하는 범주로서 사용된다.⁴⁾

4) 초고에 썼던 ‘민간지식(folk knowledge)’이란 용어를 ‘민속지식’으로 고친 것은 한 심사위원의 조언에 힘입은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발표문과 투고문 단계를 거쳐 논

그런데 신 용은 어려서 한학교육을 받았고 상당한 유교적 소양도 갖추었지만, 기본적으로 철저히 ‘근대’의 인간이다. 게다가 지적이고 근면한 기본 소양 위에 남다른 학습욕구와 독서활동, 강습참여와 대중매체 노출 등을 통해, 평균적인 농민 이상의 ‘근대적’인 (때로 오류를 지닌) 근대과학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근대적’ 지식유통의 경로 안에는 서구/근대를 기원으로 삼지 않지만 ‘공식적·문헌적’(즉 ‘비-민간적’) 권위를 인정받는 재래의 지식 역시 유통되고 있었다. 또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재래의 ‘공식적·문헌적’ 지식들도 있었다. 이렇게 ‘공식성’을 인정받는 두 종류의 재래적 지식을 전통과학지식이라 부를 것이다.⁵⁾

이와 같이 근대과학지식과 전통과학지식은 인식의 범주 상으로는 민속지식과 구별되지만, 실제 존재형태로서는 그 중 상당수가 농민의 민속지식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기도 하면서, 상호 중첩되는 영역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속의 농민은 이 세 영역 사이를 오가며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또 기상이변이나 재해에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상황논리에 따라 세 영역 사이에서 형성, 유동하면서 실제로 농민의 인식과 실천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지식을 실행지식(practical knowledge)

문으로 완성되기까지 많은 토론자, 청중 및 익명의 논문심사위원들께서 주신 아낌없는 비판, 조언, 격려의 말씀, 그리고 이 글에서 따라할 수는 없었지만 대학원 시절 수업에서 얻었던 민속구분법의 의의에 대한 가르침에 특히 감사드린다.

- 5) 이러한 용어사용은 다음과 같은 과학사학의 인식에 공명하는 한편, 이를 현대에 관한 논의 속에서 (현대적 전환에 관한 해당 논의의 결론과는 다소 위배되게) 재정립 하려는 문제의식의 일환이기도 하다. “실학의 과학사상이 등장하기 이전 조선 지식인들의 자연을 이해했던 방식은 ‘과학적’이지 않았으며…… ‘비과학적=전통적’이었던 조선 율학자들의 전통적(성리학적) 자연이해는 [실학에 의해] 점진적으로 사라져 간다는…… 시각은 ‘전통과학=비과학적’ 대 ‘근대과학=과학적=객관적’의 대립구도를 역사발전 과정에 상정한 것으로…… 우리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현상은 적어도 조선시대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전통적인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의 고도화와 세련화를 통해서 서양과학이 담고 있는 자연에 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전통과학의 체계로 회통(會通)하면서 전개되었 [다]. 이 글은…… 실학적 자연이해의 성장을 전통적인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의 전개과정이라는 연속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찾으려 한다(문중양 2003: 28-29).”

이라 부르기로 한다.⁶⁾

현대시기 농민의 자연인식과 지식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이와 같이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공연히 복잡함을 가증시키는 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농사와 관련하여 현대 농민의 지식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민간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들 사이에서 혼종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혼종성(hybridity)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민속지식과 전통과학지식이 혼종되는 양상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역사적·지리적 연속성과 공통성 등 민속지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민속지식과 근대과학지식이 혼종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2. 자연의 변화에 대한 농민적 감각과 민속지식, 전통과학지식

이 장에서는 먼저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농민의 인식 속에서 민속지식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농사일과의 복합’ 즉 기상현상 및 농사작업 전개와의 복합적 연관 속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농민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승되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그 속에서 민속지식과 전통과학지식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는 기획이다.

6) 실행지식은 제임스 스코트(2010)가 메티스(metis), 즉 실행지(實行智)라 불렀던 것이나,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1977)가 실천논리(logic of practice)라 불렀던 것에 구조적 성격이나 위치상 상응한다. 그러나 실행지를 근대 지식과 서로 분리된 별개의 지적 체계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는 스코트와 달리, 이 글은 실행지식이 기본적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구성되는 혼종적(hybrid)인 것이라 이해한다. 또한 오랜 ‘오감체험’과 ‘경험축적’에 바탕을 둔 ‘상황논리’라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그 작동방식이 주로 운동신경으로 체화된 권투선수의 신체적 기제(機制)보다는, 주로 인지능력으로 체화된 과학자의 지성적 논리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의 실행지식은 부르디외의 문제의식과 초점을 달리한다.

『평택 대곡일기』를 보면 자연현상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표현들이 매일 매일의 날씨에 대한 기록과 함께 나타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일은 신 웅의 당연한 일과이면서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으며, 이는 농사가 날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지역문화연구소 편 2007: 29).⁷⁾ 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양상은 제반 기상현상들이 농사와 관련하여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우선 용어들부터 보면, 가령 강수량을 재는 단위는 쟁기보습이 땅에 들어갈 만큼의 양을 뜻하는 ‘보지락’이 사용되며,⁸⁾ 장마는 비가 오지 않는 ‘건장마’와 구름만 끼고 비가 오지 않는 ‘구름장마’를 하위범주로 갖는다. 이것이 농사를 위해 필요한 비를 기다리는 농민의식의 반영이라는 점은, 이들 용어가 우려의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⁹⁾ 이렇게 기다리던 끝에 내리는 비는 ‘적우(適雨)’, ‘감우(甘雨)’나 ‘단비’, ‘약배[藥]’ 등으로 표현되며, 때로는 ‘곡식이 내렸다’며 상당히 문화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¹⁰⁾ 반면 이미 충분한 물이 있어

7) 이 문장은 『날씨와 농사』라는 표제 아래 작성된 십일종의 해제로부터의 인용인데, 이를 포함하여 이 글은 그의 해제로부터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해제는 해제별 작성자를 명기하지 않았기에, 논문의 인용규칙 상 이 점을 밝힐 길이 없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해두고 싶다.

8) “어제 오후 6시경부터 시작한 비는…… 약 두 보지락 정도가 넘을 것 같다(59.5.4).”; “중일토록(10시경) 나린 비는 얼추 한 보지락은 나릴 것 같다(59.5.21).” 이하 『평택 대곡일기』로부터의 인용은 인용문 뒤 연월일만을 표기하고, 다른 일기로부터 인용은 자료명칭을 표기한 후 연월일을 적기로 한다. 인용문 중 ‘……’는 원문 중의 표기를 옮긴 것이고 ‘……’는 인용 과정에서 말을 줄인 것이다. 『평택 대곡일기』 원문은 국한문혼용어로 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 인용할 때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글로 표기하고 적절히 쉼표와 마침표를 더했으며,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아울러, 지역문화연구소에서 펴낸 간행본 『평택 대곡일기』는 한자를 노출시키고 한글의 표기 오류는 그대로 둔 채 띄어쓰기와 한자 오기만을 바로잡아 출간한 것임도 밝혀둔다.

9) “장마철이라 하지만 비는 안 오는 건장마다. …… 논들을 말리였더니 그냥 말라붙겠대(67.7.7).”; “벌서 구름장마인지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오니 이대로 [별이] 들면 큰일이다(67.5.29).” 이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자가 더한 설명은 []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10) “적우다. 아주 감 마차 왔다. 기다리던 비는 왔다. 집에 와 한참을 느리지게 잤다(64.7.1).”; “오늘은 비가 축축히 나리어 …… 벼에는 좋이 아니하나 김장에 적우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용어로는 불필요할 때 내리는 비인 ‘객수(客水)’와,¹¹⁾ 때는 적절하나 필요 이상으로 내리는 비인 ‘여비[餘]’ 등이 있다.¹²⁾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들 용어가 그저 신 용 개인이 일기 속에 자신의 감회를 남기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고잔리 농민들이 서로 같은 표현을 교환하며 이야기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적은 일기 속 기록들로부터 확인된다. “오늘도 종일토록 오락가락 비는 나리였다. 사람마다 만나면 “아이 참. 얼마나 올까여. 어제 저녁은 왜뚝에 뛰여 다니느라고 한심도 못 잤지. 올해는 왜 이리 객수가 많아.” 등의 화제가 오고 간다(59.8.27).”는 것은 비를 걱정하며 나눈 얘기다. 반면 “조반에 마실을 가보니 사람들이 입이 병글병글. 약비여, 곡식이 나리였어, 등 모두 비오는 인사다. 제 아무리 살랏고 지랄해도 자연조건에 의해서는 것이 인간 아닌가(60.3.20).”는 기록은 비를 반기는 대화이다. 살아 꿈틀거리는 표현 세계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서도 인상적이거니와, 농민들이 관심사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이런 용어들을 공유하며, 또 공유를 통해 그것이 전승되고 있음을 날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그저 낱말들의 공유와 전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담이나 사자성어 형태의 표현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속담 형태의 예로는 ‘봄비가 잦으면 말며느리 손이 커진다.’나 ‘소나기는 쇠등을 닦는다.’ 등이, 사자성어 형태의 고언으로는 아침 일찍 내리는 비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뜻의 ‘조우지단(早雨之短)’ 등이 대표적이다.¹³⁾ 그런데 날

(67.10.1).”; “감우. 단비는 종일 부슬부슬 나리였다. 오전 중 누워있었다(76.7.2).”; “금반 나린 비는 약비다. 비로 준 것보다 낡다(67.6.20).”; “새벽 잠결에 드르니 부슬 부슬 낙수소리 푹푹… 또룩푹… 옛이 방가운지 눈이 번쩍 더 문을 열고 내다보니 먼동이 트일 무렵이다. 우리 인가에게 곡식이 나리 것이요……(60.3.30).”

11) “어제 모짜리를 하고 논 치기도 전에 비가 와 덜 좋겠다. …… 객수라 보리엔 아주 덜 좋다(64.4.15).”; “오늘 바라지 않은 객수가 종일토록 나리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67.8.15).”

12) “10시경부터 시작한 비는 답전곡(畓田穀)에 적당량이 나리였으나 금반(今般) 여비는 3, 4일 나릴 것이며 흉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만 왔으면 좋으련만……(67.7.12).”

말들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하지만 이런 식의 속담이나 고언이 되면 확실히, 기상현상의 표현들은 경험적인 민속지식으로서의 내용과 근거를 갖춘 것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 대곡일기』에서 ‘조우지지만(早雨之知만)’이라고도 기록되는¹⁴⁾ ‘조우지단’의 경우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보자. 이 표현은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편인데, 가령 ‘조우지단’의 예로는 “식전에 일어나니 비가 몇 방울 시작했으나 조우지단은 병법에도 있다는데 올 듯하지 않다. …… 오후에는 빗이 낮으니 기다리던 비는 멀리 가버리었다(62.5.27).”는 것이 있다. “초하루 차 식전 비의 비도 적을 뿐 아니라 가물 증조라고 생각하니 불안하다. 병법에도 조우지지만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조금만 더 나리어 주었으면 농꿀 논을 해 심을 텐데(68.5.27).”는 ‘조우지지만’의 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들 표현이 그저 날씨의 객관적 기록이나 수사적 표현을 위해 속담·고언을 끌어들이는 단순한 차용의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당일이나 이후 전개될 기상예측이나 작업계획을 위한 경험적 근거에 가깝게 사용된다.

한편 이런 민속지식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었는데, 틀린다고 해서 바로 그 지적 권위를 잃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질레꽃머리에 비가 안 온다.’는 말은¹⁵⁾ ‘백일홍 핀지 백일이면 서리가 내린다.’와 함께,¹⁶⁾ 『평택 대곡일기』에 속담 형태의 민속지식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
- 13) “봄비가 왔으며는 맛메누리손이 커진다더니 인심의 인색함이 봄에 비가 자즈며는 풀린다(61.3.3).”; “말에 의하면 다른 곳은 비가 안 왔다구. 쏘나귀는 쇠등을 다툰다더니 이곳 대곡부락은 오던 중 많은 비가 왔다(65.8.14).”; “식전에 일어나 바깥을 내다보니 비방울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별로 올 듯하지 않다. 조우지단이라더니 곳 끌지고 마랐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비가 적고 또 기다린다(62.5.12).”
 - 14) ‘조우지지만(早雨之知만)’의 ‘만’은 본래 한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 15) “이맘대머는 물이 구해고 질레꽃머리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량이 많았다(63.5.27).”; “악수(惡水) 같은 비는 밤새도록 오늘도 종일 나리어 일대 물소동을 이루었다. …… 질레꽃머리에 비 안 온다는 것인데 금년엔 아논에 시비(施肥)를 했는데 물이 겹으니 손실이 많을 것이다(63.5.30).”
 - 16) “전까지도 백일홍이 핀 줄을 몰랐는데 밤사이에 피었는데 백일홍도 몇 송이가 피었다. 백일홍 피운지 백일 만에 서리가 온다는데 과연 지금부터 백일이면 서리는 오고 말고(59.7.19).”; “마당 끝에 있는 백일홍이 피었다. 백일홍 피운지 백일 만이면 서리

다. 그런데 1974년 5월 하순, 역시 ‘짚레꽃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레비가 왔다. 신 응은 이에 대해 “짚레꽃머리에 가문다는 것은 기상 통례인데 금년엔 장마가 들었으니 이상기온은 또 가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74.5.25).”라고 적고 있었다. 여기에서처럼 민속지식은 항시 적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초자연적 믿음’이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입증되어 상식화된 ‘실험적 지식’이었고, 오늘날의 근대과학지식과 마찬가지로 이에 어긋나는 일은 오히려 기상이변의 징조로 이해되고 있었다.

다시 ‘조우지단’으로 돌아가 그를 둘러싼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배경을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신 응은 이것이 ‘병법에도 있는 상식’이라고 보고 있었고, 일기에 기록된 대화 상황들로 보아 아마도 이는 고잔리를 포함하여 당대 농민들 사이에 상당히 통용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물론 조선 시기에, 그리고 병서는 물론 국가의 공식적 연대기자료와 개인문집들까지 포함해서 살펴도, 그와 같은 표현들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¹⁷⁾

한편 이와 가장 근사한 표현으로는 ‘조우이만풍(朝雨而晚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김석주(金錫胄, 1634-1684)는 재판을 괜히 끌지 말고 빨리 판결한 후 사면할 자는 사면하도록 임금에게 청하는 상소에서, 아침에 짙은 비오고 저녁에는 바람 불어 구름이 걷히

가 온다는데 날은 잘도 가것만 기다리는 비는 안 온다. 이대로 가물다가 큰 흉년을 만들 모양이다(62.7.14).”

17) 오늘날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조선시기의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과 한국고전종합대 데이터베이스(db.itkc.or.kr) 등의 검색엔진으로 검색하였다. ‘조우지단’ 외에 ‘조우지’ ‘조우지지’ 등도 검색어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 응의 ‘조우지지만’이라는 표현이 ‘早雨之知晚晴’ 등의 오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제IV장에 인용한 일기 원문으로 알 수 있듯이 신 응이 염두에 두고 있는 ‘병서’란 『손자병법』을 말하는데, 『손자병법』에는 그와 같은 구절이 없다. 단지, 군사의 사기(士氣)를 언급하며 “아침의 기는 날카롭고 낮에 기는 늘어지며 저녁에는 기가 되돌아간다(朝氣銳 晝氣惰 暮氣歸).”고 하거나, 화공(火攻)을 언급하며 “낮에 바람이 오레 불면 밤에 바람이 맞는 다(晝風久 夜風止).”고 적은 구절이 있다. 내용상 이를 ‘조우지단’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는 식의 정치로는 곤란하다며 이 표현을 썼다.¹⁸⁾ 또 『청구영언』(1728)에 실린 조선중기의 문신 신흠(申欽, 1566~1628)의 시조 중 “아침은 비오더니 느즈니는 바람이로다”의 한역(漢譯) 역시 조우만풍이었다.¹⁹⁾ 이를 두고 농민의 속담과 지식인의 문장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를 따지는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로써 흔히 입에 담을 수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에, 상소 속 정치적 문구가 되었든 시조 속 예술적 문구가 되었든 지식인들의 그것 역시 비유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동북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역시 속담 중에 ‘早雨天晴 晚雨難晴’ ‘早晨下雨當日晴’ ‘早晨下雨一天晴’ ‘開門雨漣漣 晴朗在午前’ ‘開門雨 關文晴’과 같은 표현들이 지방 각처에서 전해진다.²⁰⁾ 내용적으로는 ‘조우지만’이나 ‘조우만풍’과 사실상 같은 지식을 담은 것이지만, 문구 자체로는 모두가 한국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용례들이다. 또 일본에도 역시 ‘朝雨傘要らず’나 ‘朝雨馬に鞍置け’와 같이, 아침 비는 금방 그치니 우산이 필요 없다거나 안장을 엮고 나갈 채비를 하라는 등 속담이 있다. 우산이나 말안장을 거론하는 점은 우리 정서와 잘 맞지 않지만, 아침 비를 둘러싼 기상예측이라는 면에서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것들이다. 이들로서 보건대 ‘아침 비는 금방 그친다.’는 인식은 동북아시아 세계에 공통된 민속지식의 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 金錫胄, 『息庵遺稿』, 卷13, 疏筭, 請行審理筭. “晝陰而夜晴 朝雨而晚風 暫時沾灑 已即開霽 天心之靳澤如此 可赦而不赦 當宥而不宥 始欲開釋 旋並錮閉 朝議之慳赦如此 以此求雨 臣恐終無得雨之理也 惟願聖明亟軫睿念 其於應天則必以實 其於用法則必在寬 而更命有司取進前後流記者罪籍 量其輕重 並行有赦 以體太易之時義 則庶幾雷雨遂作 屯膏一解 德澤霽然 霑及遠邇 蘇枯醒暈 不足以喻其化也.”

19) 金天澤, 『靑丘永言』. “아침은 비오더니 느즈니는 바람이로다 千里萬里人共해 風雨는 무스 일고 두어라 黃昏이 머럿거니 수여간들 엇드리(朝雨晚風 千里萬里 風雨何爲 黃昏尙遠 休歟歸止).”

20) 모두 중국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바이두(百度)에서 찾은 결과인데, 같은 문구는 상기한 한국의 어떤 검색엔진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 옹과 그 주변 농민들이 “병서에도 있다는데……”라며 속담 외에 ‘조우지단’의 문헌적 전거가 있음을 언급했던 것은 아예 근거가 없는 낭설이었던 것일까? 중국 명대의 속담집인 『전가오행(田家五行)』을 보면, ‘비가 오경(새벽 3~5시)을 때리면 해가 물구덩이에 쬐다(雨打五更 日晒水坑)’라고 하여 내용상 ‘조우지단’과 상통하는 구절이 실려 있다.²¹⁾ 그런데 이 『전가오행』 속 문구는 다시 조선에 들어와 박세당의 『색경』(1676), 유중립의 『증보산림경제』(1766), 박지원의 『과농소초』(1799) 등 일부 농서에 전재되고 있었다.²²⁾ 따라서 고잔리 농민들의 생각과 달리 그 표현은 정확히 ‘조우지단’이 아니었고 또 병서가 아닌 농서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그 지식 자체에 아주 문헌적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셈이다.

반대로 (비록 틀렸지만) 이런 문헌적 근거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면, 농민들 사이에서 ‘조우지단’이 지니는 지식으로서의 권위는 보다 약해졌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속지식으로서 ‘조우지단’의 힘은 전통과 학지식의 일부가 됨으로써(또는 그렇게 오인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전가오행』에서는 그저 중국 민간의 속담, 즉 민속지식이었으나, 이후 유전(流轉)되어 조선에서 각종 농서들에게까지 실리고 보면, 이미 이는 전통과학지식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1) 婁元禮, 『田家五行』.

22) 朴世堂, 『穡經』 下, 田家占驗, 天文類, 占雨;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卷15, 田家占候, 論雨; 朴趾源, 『課農小抄』, 占候, 論雨. 한편 『색경』과 『증보산림경제』에는 “諺云 雨打五更 日晒水坑 言五更忽有雨 日中必晴 甚驗”으로, 『과농소초』에는 “諺云 雨打五更 日晒水坑 言五更忽然雨 日中必晴 甚驗”으로 인용원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전가오행』과 같은 구절이며, 후자는 『전원필고(田園必攷)』로부터의 인용이라 밝혀져 있다. 참고로, 전자는 단순히 인용만을 하였지만 후자는 이를 포함하여 날씨 점치기 전반에 대해 저자인 연암 자신의 의견이 달려 있다. 연암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경서에도 날씨를 점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일이며, “도랑과 물고랑을 다스리면 물은 재앙일 수 없고, 두레박과 수차를 갖추면 가뭄도 해가 될 수 없다(溝洫治而水不能爲災 屛車備而旱不能爲虐)”는 것이 그의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릇된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처럼 완벽한 관개·배수시설은 최근에 이르도록 갖추기가 어려웠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다소간 극단적인 이상론이라고 할 것이다.

한 농촌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노농(老農)들이 갖고 있고 또 유통시키는 재래의 민속지식은, 문헌근거를 지니고 엘리트층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널리 유통되던 전통과학지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세계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순전히 ‘민간’에 고유한 것이라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하기 어려운 지식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3. 농민의 자연 감각과 민속지식들 사이의 관계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농민의 감각과 민속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나 가뭄과 상호결부된 기상현상으로서 그것들을 부르는 바람의 성격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도록 한다. 농민의 풍우인식 중 기존 현장보고에 일정한 축적이 있는 ‘바람’으로 특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평택 대곡일기』 속의 민속지식이 평택 대곡 마을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같은 종류의 민속지식이 관찰된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평택 대곡일기』에서 바람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바람이 많이 불어 무언가가 날아갔다거나, 더운 날에 시원했다, 혹은 그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불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나 가뭄과 상관이 없이, 농민이 아닌 이들도 적을 수 있는 내용도 자주 나온다. 그러나 이조차도 일의 강도와 난이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농사작업과 긴밀히 연관된 것들이거나, 실은 이 수준을 넘어선 보다 의미심장한 기록들이 관찰된다. 크게 보아 두 종류이다.

하나는 봄철에 이리저리 어지럽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부는 바람을 향후 1년간 농사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하나의 불안한 징조로 여기는 경우이다.²³⁾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풍산하다’는 것이다. 국

어사전에서 ‘풍산(風散)하다’는 바람이 불어 우박이 이리저리 흩어지다, 전하여 무언가가 엉망으로 깨져 사방으로 날아 흩어진다는 뜻을 가진 ‘풍비박산하다’의 준말이라 정의된다. 그러나 별판에 부는 바람이란 어느 한 방향에서 다른 어느 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흩어질 수는 없으니,²⁴⁾ 『평택 대곡일기』에서는 바람이 음산(陰散)하게 이리저리 어지러이 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기 속에서 신 응은 건조하면서 어지럽게 부는 바람이나 스산한 날씨는 당장의 기상 상태를 가리키는 표면의 뜻을 넘어, 일 년 농사를 망치는 불길한 징조로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감각이 신 응의 것만이 아니라는 점은, 15년의 연령차를 두고, 직선거리로 150km, 도로 상으로는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이인 경북 김천 권순덕 응(1944~)의 『아포일기』(1969~2000)를 통해서도 확인된다.²⁵⁾ 권 응 역시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연일 바람이 부는 날씨, 특히 본래 바람이 센 봄철로서도 바람이 센 날씨를 보면서 그것이 일 년 농사에 어려움이 닥칠 징조라 여기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사실 권 응은 이런 전조(前兆)로 인한 불안을 신 응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오히려 신 응의 불안까

-
- 23) “하오엔 바람이 심하고 냉하여 그냥 밭매기를 중지했다. 비가 촉촉이 내리여야겠는데, 금년 봄엔 바람이 심하여 금년 농사가 어이될 것인가 걱정이다(65.3.26).”; “풍산한 날씨다. 매일같이 일기가 흉악하여 불안하다(67.4.5).”; “날씨는 참으로 풍산한 날씨다. 오후엔 개였으나 날씨가 차거워 금년 농사에 만든 지장을 초래할 것 같고(76.5.5).”; “오늘도 마찬가지로 [황사바람이 불어 눈에 물을 말리느] 날씨로 연속되니 큰일이다 일정의 소화 14년도가 이리 가물었다는데 그때와 같은 흉년이 온다면 나라의 구급은 어려울 것이다. …… 아주 심상치 않은 해다(65.4.15).”
- 24) 물론 바람이 높은 암벽이나 건물 등 우뚝 선 장애물에 부딪혀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평택 고잔리는 그런 지형지물이나 건조물이 없다시피 한 환경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5) “하로하로 지나가는 날씨를 보니 만이 가물개구나. 왜냐. 비방울 몇 방울 오고는 바람이 부러재키는 것을 보며 시절이 별로 좋치는 안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아포일기, 76.4.22).”; “봄 돼며 바람은 센 중은 누구나 다 알지만 …… 오늘은 무선 바람이 그처럼 썰며 사람이 일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업쓸 정도로 불고는 하는데, 이것을 볼 때에 금년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가뭄이 심하지 않을까 극정이 앞쓰는구나(아포일기, 84.3.16).”

지도 확실하게 이해되는 면이 있다.

두 번째는 특정 바람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결과를 수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가뭄이나 홍수가 바로 목전에 닥쳐 있음을 말해주는 전조일 뿐 아니라, 바람이 실제 저수지나 논에 고인 물을 말리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경우이다. 이들을 보면, 우선 ‘누가 물을 따라서 가기라도 한 듯’ 논에서 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물 도둑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²⁶⁾ 그리고 그 바람이 물을 말리는 정도는, ‘오늘하루 바람으로 물이 버섯 줄어들었다’는 표현으로 대표되듯 급격하고 강력한 것일 수도 있었다.²⁷⁾ 게다가 동남풍이 비를 가져온다거나 물을 말리는 동풍·서풍이 계속 불고 있어서 가뭄피해가 예상된다는 식으로,²⁸⁾ 구체적으로 풍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예상되고 있기도 했다.

『평택 대곡일기』를 벗어나 사태를 바라보면, 『아포일기』에도 역시 대단한 바람이 불어와, 콩 심은 것, 모내기한 것, 아직 옮겨 심지 않은 모 등 모든 작물의 잎을 하얗게 말려버렸다는 기록이 있다.²⁹⁾ 또한 왕한 석의 『한국의 언어 민속지』 각 편을 보면, 농촌과 어촌 불문 거의 모든

-
- 26) “물이 따라 가는 것 같이 줄어들다. 바람이 심히 부니까 죽죽 당기여 올라간다(60.5.11).”; “단오비를 바라고 기다리였것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야속하게도 바람만 불어 물모금이나 잇던 논도 말아가듯 줄어들다(65.6.4).”
- 27) “물은 날로 줄어들고 청청 하늘엔 바람만 심이 일으니 농민들 한숨만 심해간다. 물모금이나 잇던 논은 오늘 바람에 벗석 줄었다(65.5.7).”; “풍산한 날씨로 물 모금이나 있는 것을 말려든다. 오늘 하루 바람으로 물이 벗석 줄었다. 불안해 죽겠다. 심신의 괴로움에 지쳐 줄음만이 닥아온다(68.5.13).”
- 28) “이래 동풍이 터졌는지 4일 재 동풍이 심이 불더니 새암이 다 마라 붓는다. 전일까지도 물모금이나 잇던 논도 오늘은 틈이 가고 전일까지도 내려가던 앞논 들도 윗 두매미는 마랐다. …… 큰 소동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몇일만 더 가면 지워는 벼농사도 못 먹을 것 같다(59.8.7).”; “동남풍이 종일 강하게 부러 농민들의 마음을 걱정케 하였다. 동남풍이 심히 불면 비가 많이 오는 까달이다(61.8.15).”; “식전에 논에 갈다가 저녁나절 가면 물을 따라간 듯하다. 오전에 동풍, 오후에 서풍이니, 좀처럼 비는 올 것 같아 않다(62.5.25).”; “기다리는 비는 연어로 가고 뜨거운 태양과 물 말리는 남서동풍으로 계속되니 하늘만 쳐다보여 한숨만 늘어 간다(68.6.29).”
- 29) “바람으로 울공, 모내기 한 곳, 모판, 모든 것이 바람에 잎이 다 말라버리는 것은 이때껏 처음 발다. 일반 모을 요번에 바람 불 때 모내기한 사람은 모두가 하얗게 말라 버리쓰며……(아포일기, 80.5.29).”

곳에서 맑은 날씨와 낫은 날씨, 그리고 때로 가뭄과 호우를 불러오는(예측케 하는) 바람의 구분법이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경기 강화 지역에서는 북동풍(늦새)이 불면 샘물도 마르고 북서풍(늦하네)이 불면 논바닥이 갈라진다고 하였고(왕한석 2009: 37), 부산 동래 지역에서는 북서풍(댄바람)이 불면 아이들 간까지 말린다고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같은 책: 132). 바람이 비와 가뭄을 부르고 또 고인 물까지 말린다는 생각 역시 평택의 농민들로 한정된 지식이 아니라는 점이 이를 통해 확인된다.

바람이 논이나 저수지에 고인 물을 말린다는 생각이 20세기 후반의 농민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작성된 농서 『천일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던 유생 출신 우하영이 가난한 살림살이로 인해 과거시험을 포기한 뒤 농사를 짓고 살면서, 기존에 간행된 농서 속 지식과 자신의 농사경험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농사짓기에 긴요한 열 가지 조목을 꼽고 그 중 아홉 번째로 ‘수원(水源) 미리 모아두기’를 들어 설명하면서, 저수지 주변의 소나무가 바람을 일으켜서 둑 안에 모아둔 물을 말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은갓 나무들이 모두 물을 키워내기에 적당하지만 오직 소나무만은 적절치 못하니, 물가 둑 근처에 소나무를 심는 일은 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 소나무는 본래가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그 바람 또한 솔솔 불어 화창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서늘하고 건조한 특징이 있다. 만일 숲과 샘이 우거지고 울창한 속에서라면 방해될 것이 없겠지만, 그 제언(堤堰)의 물을 모아둔 곳에서라면 바람이 일어 쉽게 말라붙을 우려가 참으로 많은 것이다.³⁰⁾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저수지 주변에 소나무 심는 일을 경계한 것으

30) 禹夏永, 『千一錄』 卷8, 『農家總覽』, 作農之方十目, 豫貯水源. “百樹皆宜養水 惟松樹不宜 凡於堤岸近處 慎勿栽松 …… 松樹自是多風 風亦不能薰暢 而多寒且乾 若在林泉翳鬱之中 則無所妨也 而其於堤堰貯水之處 實多引風易涸之患矣.” 이 책의 번역본으로는 우하영(2015)을 볼 것.

로, 특정 방향의 바람을 문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의 소나무가 문제가 되는 까닭은 다시 그것이 바람을, 특히 솔솔 부는 화창한 바람이 아닌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그것도 다량으로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그것도 소나무가 일으키는 바람이 저수지에 고인 물을 말릴 수 있다면, 자연에 부는 강한 바람이 물을, 그것도 논에 있는 물을 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니다.

이 서술에 대해 한 과학사학자는 “소나무와 바람, 바람과 물의 고갈을 연결 지어서 이해하는 우하영의 사고는 분명히 현대인들의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사회의 농민들과 지식인들의 관념 속에는 그러한 생각이 뿌리 깊게 차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의 정서에 맞았다.”라고 평한 바 있다(문중양 2000: 178). 이 논의를 연장한다면, ‘현대인과 거리가 먼’ 바람과 물의 고갈을 연결 짓는 사고는 ‘전통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근대는 물론 현대로 들어서까지도 유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것처럼 현대 농민의 민속지식과 조선후기의 전통과학지식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중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은 바람에 대한 경기 농민과 영남 농민의 민속지식이, 그리고 조선후기 농민의 민속지식과 현대 농민의 민속지식이 또한 서로 단절되지 않고 중첩을 이루며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959년 8월 말, 『평택 대곡일기』는 장마 끝에 너무 많은 비가 오는 것을 걱정하며, “비오는 것이 큰 걱정이다. 바람만 잘못 부러도 신경을 쓰게 된다. 우순풍조 이것이다(59.8.29).”라고 적었다. 바람에도 농사에도 무감·무지한 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비와 바람과 불안이 연결되는 이 논리전개에 대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미신이나 기우라고 생각하거나, 내적으로 상관이 없는 현상이 우연히 나란히 적혔다고 생각하거나, ‘비와 바람이 어지러우면 농사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정도로 막연한 공감을 하고 만다. 그러나 이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위 세 문장이 그들 사이의 명확한 논리적 인과관계, 그리고

농민사회에서 전승되는 민속지식이라는 경험적 근거 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순풍조’로 대표되는 ‘비와 바람이 순하고 고르다’는 농민 사회의 희망을 담은 표현은, 그저 좋은 말을 나열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바람이 잘못 불어 비나 가뭄으로 재해를 입는’ 암담하고 불안한 세계와 대립하며 싸우는 표상이다.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비-바람-불안은, 그저 막연한 노심초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람의 양과 때와 향까지 모두 살피는 면밀한 경험적 관찰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4. 근대과학지식을 마주한 민속지식의 유전(流轉)과 실행지식의 행로

이 장에서는 가뭄과 비와 바람의 관계에 대한 민속지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그 유전(流轉)의 과정, 특히 근대과학지식과의 접촉과 결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적한다. 앞에서 ‘바람과 물의 고갈을 연결시키는 사고방식은 현대인의 사고와는 거리가 멀지만 전통사회의 농민들에게는 뿌리가 깊고 정서적으로도 맞았다.’고 적은 과학사학자의 설명을 인용한 바 있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바람과 물의 고갈을 연결시키는 세계관’은 농업이나 자연과 유리된 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논리가 접촉 불가능한 세계이다. 그러나 이는 그른 설명이다. 『평택 대곡일기』에서 우하영과 상통하(며 아마도 그 기반이 되)는 설명을 적은 신 옹은 ‘근대’에 태어나 ‘현대’를 살아간, 철저하게 ‘근대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절과 지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³¹⁾ 이를 위해 우선 1절에

31) 물론 이는 해당 지식체계 전체의 기원과 변천, 소멸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일 수는 없다. 한 현대농촌일기에 나타난 제한된 자료를 통해 그 메커니즘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서 그러한 민속지식이 근현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경신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어서 2절에서는 그렇게 축적된 민속지식과 근대 과학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1) 민속지식의 생성 · 축적과 전승 · 경신

이에 대한 설명은 우선 그것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농민들의 용어 분화가 농사작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서술하면서, 해당 용어들이 농민들의 일상적 대화를 통해 공유, 전승되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특정 민간용어나 속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속지식의 체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평택 대곡일기』를 통해 확인된다.

가령 1960년 봄은 4월 10일에 비가 내려 ‘대풍’마저 기대되었지만,³²⁾ 이후 모내기철에 이르도록 한 달 여간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5월에 접어들자 걱정은 커지고 있었고, 신 옹은 이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³³⁾ 그 한 가운데 있던 5월 초, 신 옹은 “전일 바람 끝에 비가 안 내리면 여러 날 비는 안 올 것이라고덜 말하고 있다(60.5.5).”며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32) “전일부터 후텁지근하더니 밤부터 부슬부슬 비 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자고 일어나보니 물을 늘 정도는 아니지만 부리에는 아주 적당하게 나리였다. …… 한 달 후에 푸근히 나리머는 대풍이다(60.4.10).”

33) “흐렸간간 개이고 개였간간 흐리고 하는 날씨가 계속 되니 가물증조가 아니냐(60.5.3).”; “모자리가 잘 안 자라고 모가 들고 일어나 물을 전부 빼고 다시 그누었다. …… 아논물은 작꾸 줄어 다섯째 조부 두 마지기를 가래질 했으니 비는 안 오고 또 큰일이다(60.5.4).”; “날씨 흐렷다 개였다 하는 날씨가 비는 좀처럼 나릴 것 같이 안아 사람의 간장을 태우고 있다(60.5.6).”; “앞 말 가웃지기 물도 빗석 줄어 벼밭이 보인다. 하느님도 너무하지 목마른 天地에 물 좀 주시지(60.5.8).”; “물이 따라 가는 것 같이 줄어든다. 바람이 심히 부니까 죽죽 당기여 올라간다. …… 우리는 모자리가 가래서 몸이 부러 가지가 친 다음 심으면 좋으려만 물이 마르니 손에 잡히면 길길 째건 심어야겠다. …… 비 좀 나리소. 비 좀 나리소. 목마른 이 대지에 물 좀 나리소. 목이 타는 초목에 양식을 주소서(60.5.11).”

기록하고 있다. 이런 궁지에서 12일에는 종일토록 바람이 불었고, 신용은 “사람의 간장을 태우는 이 바람. 소란스럽고 진정을 못할 이 심정”이라고 애타하면서도, “이 바람 끝에 비가 와야지 그냥 들면 참말로 보다리 끄디여야 될 지경이다. 대지구명(大地救命)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그 바람에 간절히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60.5.12). 그런데 이튿날 실제로 종일 비가 내렸다. 이후 며칠간 그의 일기는 기쁨과 반가움, 활력과 생기로 가득한데, 역시 흥미로운 것은 농민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다.

식전 비라 얼마나 올까 했으나…… 종일 나리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든 비. 메마른 대지 우에 물이 나리니 온 초목이 생기를 내고 사람들의 거름이 가분가분 하고 우습소리가 난다.…… 생명수다. 저녁에도 나리었다. 식전 비라 없이 여기였더니 제법 많이 나리었다(60.5.13).

식전에 물고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들에 사람이 웅기중기 하고 있다.…… 물은 아논에 별창이 되었다. 논뚜랑이 잘 안 보일 지경이다. 비는 참 많이 왔다. 말에 의하면 두 보지락 가깝게 왔다 한다(60.5.14).

가뭄이 지속되면 지속되는 대로,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사람들은 웅기중기 모여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희망과 걱정을 나누며, 이를 토대로 기상을 예측해 농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 중 어떤 것(조우지단)은 어긋나고, 어떤 것(비를 부르는 바람)은 들어맞고 있었다. 그리고 5월 5일 사람들에게서 얻은 “이 바람 끝에 비가 안 오면 며칠간 비가 안 올 것이라고 한다.”는 전문(傳聞)이, 12일 일기에서는 스스로 지닌 민속지식으로 변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집단적인 이야기를 통해 공유된 지식이 일정한 시간을 거쳐 자신의 것으로 습득되는 과정은 『평택 대곡일기』에서 보다 긴 시간적 경과를 거쳐 나타나기도 한다. 1965년은 유례 드문 가뭄이 닥친 해였는데, 4월 중순에는 가물던 중 며칠째 황사바람이 불어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다.³⁴⁾ 이에 신 응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연속되니 큰일이다 일정의 소화 14년도가 이리 가물었다는데 그때와 같은 흉년이 온다면 나라의 구급은 어려울 것이다. …… 아주 심상치 않은 해다.”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화 14년(1939년) 가뭄은 유례없는 대가뭄으로서 지금도 농민들 사이에 ‘칠년대한(七年大旱)’ 또는 ‘칠년 가뭄’이라고 회자되는, 일제말기부터 해방직후에 걸친 기록적 한발이 시작되던 해였다. 신 응은 이 해 6월에도 “참으로 가뭄은 해다. 소화 14년가 가물었다 하것만 금년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한다(65.6.7).”라고 그들은 바를 적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1978년 봄에 큰 가뭄이 닥쳤을 때 신 응이 “현재 60년 내의 가뭄이라 한다. 내가 알기론 소화 14년 후는 없다. 앞으로 20일만 더 가물면 농사일은 끝장이다(78.5.16).”고 적은 점이다. 즉, 1960년대 중반에는 분명히 ‘들은 이야기’였던 1939년의 대가뭄이, 70년대 후반에는 ‘체험적 지식’으로 기록된 것이다. 1929년생인 신 응이 1939년 대가뭄의 참상 중 일부 인상적인 장면을 기억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가뭄들 사이의 비교, 특히 그것이 농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에 이를 정도로 전면적이고 상세한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이것이 1960년대에 그 정보가 ‘들은 이야기’로 기록되어야 했던 까닭이다. 그런데도 1978년에는 “내가 알기로는”이라는 기두(起頭)와 함께 60년만의 가뭄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마주 놓일 정도의 단언으로서 적혀 있었다. 결국 이는 ‘들은 이야기’가 어느새 ‘경험 주체’인 신 응의 ‘내면화된 지식’으로 전환(실은 착종)되었음을 말해주는 일이다.

이는 한편으로 민속지식이라는 지식체계가 지닌 경험적 근거의 불안정함, 그 신빙성의 결여상태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34) “서쪽 하늘이 뿌연 것이 큰바람이 일어오고 있다 조반식사 후엔 바람이 일기 시작해서 흙바람이 종일토록 일었다(65.4.10).”; “날씨는 황토폰으로 물모금이나 잇는 것을 팔아가고 우리 농민들의 간장을 태운다(65.4.14).”

한편에서 민속지식이 지니는 역동성과 경험적 발전방식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민속지식이 나름의 지적 권위와 지식체계로서의 힘을 가진 것일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룰테면 ‘민간적 과학과 민간적 역사의 총체’로 존재하면서, 과거의 어떤 순간에 만들어져 그 결정(結晶)으로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적 과학과 역사가 그러하듯이 현장에서 경험된 새로운 사실이 지속적으로 더해짐으로써 경신되어 가기 때문이다. 1939년 대가뭄 이전과 이후 사이에 농사현장의 가뭄에 대한 농민적 지식체계는 큰 발전을 이루는 반면, 이 ‘칠년대환’에 대해 언급하는 어떤 공식적인 지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유사한 예를 『평택 대곡일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 1962년에도 한창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고 있었다. 그 중 신 웅은 샘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면서 “작년만 해도 하로만 고이면 260여 두레박이 고이는데 금년엔 160정도밖에 안 고인다(62.5.21).”고 적었다. 하루 만에 샘에 고이는 물의 양을 두레박질로 물을 퍼 올린 십 단위 횡수까지 기억하면서, 그 해 가뭄의 정도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62년의 경험이 다시 그 후의 기후측정과 기상예측, 농사계획과 관련하여 새로운 참조의 지점이 됨은 물론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1965년의 가뭄 역시 마찬가지이다. 68년에 다시 가뭄이 닥치자 신 웅은 65년의 가뭄 당시 자신의 경작지가 말라붙던 상황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적어도 대곡리에서는 68년 가뭄이 65년 가뭄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 발표에 앞서, 정부의 발표가 절대 미치지 못할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³⁵⁾ 특히 65년 가뭄 때 돌아가셨던 조

35) “날씨가 이토록 가뭄은 해는 별로 없다. 65년도에도 80년만에 가뭄이 왔노라고 했으나 우리 집으로는 65년도에는 앞 5두락은 아직까지 물이 많았으나 금년엔 농꿀 발원도 다 심지도 못했으려니와 물이 말라가는 논이 많다. 농꿀 공장도 4, 5일 더 못 갈 것 같다. 큰일이다. 농꿀 발원은 죽어가니 참으로 한발이 극심한 해이다. 할멈님 돌아가시든 해에 가뭄이 주심 했것만, 금년에 우리 집은 더욱 한 발이 심한 편이다. 오늘이 할멈님 재사인데 65년도의 한발이 회상된다(68.6.6).”

모의 기일(음력 5월 12일)을 맞아 조모 사망 당시의 가뭄을 기억해내는 방식도 흥미롭다.

그 외에도 “입동이 내일 모래인지 서리가 매일 나리더니 … 입동 전에 보리가 나아 된다는데 아직 보리가 나지 않았으니 걱정지사(60.11.5).”라거나, “내일이 단오일이라 비가 오늘 내일 안 오면 더 가뭄 것이라고 한다(64.6.13).”고 기록한 이튿날 비가 오자 적은 흐뭇한 느낌의 표현³⁶⁾ 등은, 이런 식으로 생산·축적되고 전승·경신되어온,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속지식이 지니는 살아 약동하는 권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2) 지식체계들의 한계와 실행지식의 진폭

앞 절에서 민속지식이 경신되며 재생산되는 양상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니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 일, 반면에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전해지는 과학적인 예측이 오히려 들어맞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후자료에 대비되는 경험적 민속지식의 한계는 자명했다. 이 점은 ‘절레꽃머리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이든,³⁷⁾ ‘조우지단’이든,³⁸⁾ 또는 앞 절 마지막에서 거론한 ‘단오비’에 대한 믿음이든,³⁹⁾ 예외가 없었다. 1960

36) “10시경에 쏘나귀가 나리어 비를 기다리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급한 대로 비는 되였다(64.6.14).”

37) “비는 개이였으나 날씨는 흐리였다. 눈에는 물이 별창을 했다. 이맘 때머는 물이 구해고 절레꽃 머리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량이 많았다(63.5.27).”; “악수(惡水)같은 비는 밤새도록 오늘도 종일 나리어 일대 물소동을 이루었다. …… 절레꽃 머리에 비 안온다는 것인데 급년엔 아논에 시비(施肥)를 했는데 물이 쪼으니 손실이 많을 것이다(63.5.30).”

38) “식전에 비바울을 하여 얼마 안 올 줄 알고 일직 모판을 그늘라고 물을 푸고 와 조반을 하고 나니 차츰 더 오기 시작하더니 종일토록 부슬부슬 나리였다(71.4.28).”; “자고 일어나니 흐린 날씨다. 일직 조반식사를 하고 안중으로 함석을 사라 6시반경에 출발하여 옥길부락을 가니 비가 나리기 시작한다. …… 안중에 가니 장마비양 쏘 다진다. 손자의 병법도 무색할 조우지변이 조우지장(早雨之長)이 되였다. 식전비라 얼마 못 않을 줄 알았던 비는 100m 이상이나 나리였다(72.5.8).”

년 늦가을에도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이듬해가 신축년이라는 점으로부터 지난 신축년(1901년)에도 대흉년이 들었던 점을 떠올리고, 명년에도 대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었다(60.11.17). 그러나 정작 이듬해인 1961년이 되자 오히려 약간의 물난리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풍작을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신축년 대흉년설’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게다가 이런 민속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또 부정확했다. 가령 앞서도 언급한 단옷날 비가 오는 유래와 관련하여 신 옹은 “단오일이면 견우와 직여가 오작교에서 서로 만나는 날이라고 전설이 전해왔다. 해마다 이날이면 비가 온다고들 하나……(68.6.1)”라고 적은 일이 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는 오월단오가 아닌 칠월칠석의 유래이다. ‘조우지단’이 병서에도 있는 상식이라는 신 옹의 설명이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지녔던 점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다. 가뭄이 극심했던 1965년의 모내기철에 신 옹은 “참으로 가뭄은 해”라면서 “소화 14년간 가물었다 하것만 금년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한다.”며 농민들 사이의 구전을 옮겨 적었다(65.6.7). 그러나 불과 이틀 후 신 옹은 “18년 만에 도라오는 가뭄이라나.”라고 공식적인 정부발표를 옮겨 적음으로써 이를 정정하였다. 농민들로서는 당장 자신의 터전에 닥친 가뭄의 강도가 크게 느껴져서 1939년 이래의 최대가뭄이라고 우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그 사이였던 1947년에 39년보다 못하지만 65년보다는 심한 가뭄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의해 65년의 가뭄

39) “단오 비를 바라고 기다리엇것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야속하게도 바람만 불어 물모금이나 잇던 눈도 딸아가듯 줄어든다. …… 단오 물도 멀리 같으니 비 올 가뭄은 없다. 노인들도 이렇게 가뭄은 해는 못 보았다는 것이다(65.6.4).”; “전일이 단오일. …… 해마다 이날이면 비가 온다고들 하나 금년엔 맑게 개인 날로 기다리는 비는 안 온다. 오늘 식전에도 비방울이 몇 방울 나리였으나 가물 증조다 …… 천둥 번개로 비는 안 오고 오후에는 반작 들고 마랏다(68.6.1).” 물론 이런 종류의 믿음이란 특정한 날 꼭 비나 가뭄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맘때면 늘 비나 가뭄이 왔고 관련 구전도 있으므로 그 무렵이 되면 유독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종류의 생각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은 47년 이래의 것이라고 정정된 셈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그 자신 ‘근대적’ 인간으로서 신 용이 농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민속지식에 의한 예측과 해석보다, 중앙관상대⁴⁰⁾의 공식적·과학적인 일기예보와 기상해석을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 앞서 65년의 가뭄을 47년 이래의 것이라고 정정했던 일도 실은 농민들 스스로 자신의 고장에서 통용되는 민속지식보다는 관상대의 발표를 더 신뢰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같은 해 여름, 이어지던 가뭄 끝에 7월 초순부터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중앙관상대의 발표가 6월 30일에 있었고, 신 용은 이를 두고 ‘아주 마음 든든하며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특기하였다. 그러나 실제 비가 오기 전까지는 내내 ‘물을 말리는’ 바람이 불었고, 신 용은 일할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7월 4일이 되자 거짓말처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우지단’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은 떠오르지도 않았으며(실제로는 ‘조우지단’에 부합하게도 오후에 비가 개였다), 그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불을 켜놓고 비를 반겼 다.⁴¹⁾

이와 같이 신 용 역시 어쩔 수 없이 ‘근대의 인간’이라는 점은 명약 관화하다. 실제 『평택 대곡일기』에는 중앙관상대의 발표에 의지해 날씨를 기록하고 예측하는 일이 일기 기록의 초기부터 많았다. 1959년 이래 겨울철 날씨 기록은 특히 추운 날의 기온을 1도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또 일기예보를 통해 얻은 장마전선의 이동상황에 대한 지식

40) 현재의 기상청은 해방직후 미군정청 산하의 관상국이던 것이 1949년 5개 과 24개 측후소 체계의 중앙관상대로 발족하였고, 1982년 중앙기상대가 되었다가, 1990년 기상청이 되었다.

41) “자다 드르니 부슬부슬 비오는 소리가 난다. 언저 방가운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놓고 망겨했다. 밤 1시 경은 된 모양이다. 발기도 전에 일어나 박을 내다보았다. 물이 고인 곳은 없다. 계속 부슬부슬 나리어 많이 많이 나리길 간절히 기다렸다. 들에 나가보니 트진 틈박귀에 물이 보인다. 농꿀 6두락는 물이 좀 있다. 이만해도 할결 느긋하다. 그루을 갈 것 같다. 비가 오후엔 개이였다(65.7.4).”

은 여름철 날씨 기록의 중요한 항목이었다. 이와 같이 농민의 민속지식이 아니라 관상대의 일기예보와 직접 대면하며 농사를 짓는 일이 생활의 기본 형식이었던 점은 이 시기 내내 불변의 상황이었다.⁴²⁾

이를 토대로 볼 때 민속지식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 권위를 시종일관 부정하면서 그 대안이 되는 근대적·과학적 지식체계가 병존한다는 점이야말로, 현대 농촌의 민속지식이 처한 가장 큰 위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들의 반영인 듯, 근대적·과학적 지식체계에 위배되는 설명이나 그 특성을 간직하는 독특한 민간용어들은 장기적인 일기 기록 속에서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봄철의 어지러운 바람 상태를 두고 ‘풍산하다’고 적고 이를 보며 한 해의 농사에 대해 근심하는 일, ‘보지락’이라는 단위로 강수량을 헤아리는 일, 바람의 방향으로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일 등이 모두 그러했다.

그러나 같은 문제의 연장선상에는 근대과학지식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는 사정이 놓여 있었다. 첫째로, 오늘날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력이 신 응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듯이, 관상대의 과학적 예측 역시 틀리기 일쑤였다는 사정이 있다. 1967년 7월에는 장마가 계속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장마가 이어졌다. 이에 신 응은 “중앙관상대에서선 장마가 계속된다고 발표, 논들을 말리었더니 그냥 말라붙겠다. 동육꿀논은 말랐다(67.7.7).”고 냉담한 기록을 남겼다. 1973년 6월 15일에도 비가 내릴 것이라는 관상대의 예보가 있었다. 이에 신 응은 논에 물을 퍼서 대려던 것을 그만두고 베어놓은 보

42) “푸근한 날씨였다. 내일부터 날씨가 냉해질 것이라고 관상대에서 발표했다(65.12.29).”; “관상대 발표에 의하면 7월 초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하니 기대하고 있을 뿐! 종일토록 하늘 만 쳐다 보고 있었다(68.6.29).”; “오늘도 비가 나리겠다는 중앙관상대 발표가 있었으나 씨나락의 싹이 많이 나와 조반을 일직하고 씨를 치라 같다. …… 기다리지 않은 비는 종일토록 부슬 부슬 나리었다(73.4.16).”; “중앙관상대 발표에 의하면 오늘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여 앞 왜독의 단풍나무 등 바닥의 나무를 제거하고 손질을 했다. …… 저녁엔 비가 나리기 시작하여 많은 비가 나리었다(75.7.15).”

리를 떨었다. 모두 비에 대비한 일이다. 그러나 이후 날씨는 맑음과 구름의 연속이었고 일주일 뒤 신 웅은 물이 부족한 논이 많음을 호소하였는데, 온다던 비가 실제 온 것은 26일과 27일에 걸쳐서였다. 이때 관상대의 예보는 7월 25일까지 장마가 진다는 것이었는데, 이후 다시 또 비가 오지 않자 신 웅은 “금월 25일까지 장마가 진다던 관상대 발표는 어디가고 비가 온지도 어연 10여일이 지나……(73.7.10).”라는 기록을 남겼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런 종류의 기록은 무수히 많다.

둘째, 기상에 대한 관상대의 과학적 설명은 농민들이 원하는 구체적 인 수준의 정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그것은 언제가 되어야 가뭄이나 장마가 끝날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 설명을 구하는 농민들에게 답을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일국 차원 혹은 개괄적 차원에서의 모호한 정보를 주는 데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지역마다의 농사현장에 대한 답으로서는 간극이 있었다. 1967년 10월 29일, 신 웅은 “날씨가 기울어질 것이다 관상대에서 말해 늦도록 들깨 까지 떨어지니, 급한 것은 해치우니 개운한 마음에 목욕까지 했다.”며 흡족한 마음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를 뒤에는 “날씨가 기울어질 것 같아 비설거지를 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일기 머리의 날씨 기록은 ‘청(晴)’ 또는 ‘청운(晴雲)’이 연속으로 이어졌으며, 11월 5일이 되어서야 새벽에 부슬부슬 약간의 비가 내렸다. 그리고 다시 사흘이 더 지나서야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에는 평택에 비가 내린 날 외에도 10월 29일, 30일, 11월 1일, 4일 등에 모두 비가 내렸다.⁴³⁾

셋째, 이에 더하여 그러한 근대과학지식에 근거해 국가적으로 내놓는 대책이 농촌의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인 것들이기 십상이었던 사정도 있었다. 1962년 7월 3일 신 웅은 “레디오에도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각 지방으로 웅덩이 파기 양수기 보급 등으로 파견을 나갈다고

43) 기상청 국내기후자료>과거자료(http://www.kma.go.kr/weather/climate/past_cal.jsp)

한다.”는 기록을 담담히 남겼다. 그런데 사흘 전 신 옹은 “말할 수 없는 큰 가뭄”이라며 “정부에선 물을 길어다 눈에 부라니 텅텅 갈라진 눈에 얼마를 부어야 되며 길어다 불 물은 얻에 잇느난 말이다. 탁상공론에 잇는 어리석은 말이고, 정조식 모 심지 않은 것은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에게 뽀부라니 너무나도 지나친 짓이다. 말도 아닐뿐더러 뽀다간 매마자 죽일 일이다. 너무 극성을 피운다(62.6.30).”라며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일기에 적고 있었다. 또한 간척지 농업환경에 맞지 않는 통일벼·유신벼를 재배시키고자 공무원들이 다른 품종을 파종한 못자리를 파헤치고 다니고, 통일계 품종을 심은 결과 1978년의 농사가 예상대로 부진한 작황으로 나타났을 때도, 신 옹은 분명하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역의 실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국가에 묻고 있었다.⁴⁴⁾

전체적으로 볼 때, 게다가 1973년의 아산만 방조제 완공 이후, 이 글에서 주로 다루어온 바람으로 일 년의 풍흉이나 기후변화를 예감하고 또 그것이 때로 물을 말린다는 인식은 극적으로 줄어들거나 ‘과학적으로 순화’되어간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기의 초반부터 자주 등장하던 ‘바람이 불어 물을 따라간 듯 버섯버섯 눈에 물이 줄어든다(말라간다).’는 표현은 1968년 5, 6월의 가뭄 이후 급작스레 일기에서 사라진다. 봄철 날씨의 ‘풍산함’으로 일 년 농사를 예측하는 일, 바람의 방향으로 날씨의 향배를 예측하는 기록들이 점차 줄어드는 점 역시 같은 상황의 표현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경향적으로 보자면 민속지식은 농업수리환경의 개선이나 근대과학지식의 득세와 쌍대를 이루며 쇠퇴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은 다시 그와 같은 민속지식들이 일기 속에서 등장하던 맥락이 무엇이었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한다.

44) 이에 대해서는 『평택 대곡일기』에 수록된 본인의 해제 「지역농법과 농사력」을 참조해주시 바란다. 아울러 이 시기 전개된 농촌 과학화 사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문만용(2013)을 볼 것. 이 글처럼 『평택 대곡일기』를 분석자료로 삼고 있어, 여기에서 서술한 문제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된다.

1959년 『평택 대곡일기』가 기록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그와 같은 풍우 인식은 그저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개이거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에서 기록되어 왔다. 결국 그와 같은 민속지식이 등장하는 것은, 악천후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해졌을 때 그것에라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 자신 ‘근대인’이었던 신 응에게 근대과학지식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풍우에 관한 민속지식이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이 근대과학지식의 지적 패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닥치는 농업재해와 더불어 신 응의 일기에서 주기적으로 풍우에 대한 민속지식이 등장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근대과학지식의 지적 패권 확립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평택 대곡일기』에 등장하던 풍우에 대한 민속지식이 아산만 방조제 완공 이후 드물어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수리시설이 안정화되고 자연을 느끼고 예측하려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줄어들게 되자, 그와 관련한 민속지식은 물론 감각조차 사라지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은 항속(恒速)의 일방향·일직선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진과 후퇴, 가속과 감속, 좌우요동을 포함하는 운동이었다. 따라서 농민의 실행지식은 민속지식과 전통과학지식, 근대과학지식 사이를 오가며, 필요에 따라, 상황과 때에 따라, 이 삼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뭄이 이어지던 1962년 모내기철. “바깥에서 떠드레하는 바람에 일어나 드르니” 마을 부녀회 여성들이 대청소를 벌이고 있었다. 가뭄 중의 대청소는 비를 오도록 하려는 대표적인 민간 신앙풍속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날 신 응은 비가 온다는 기상대 발표도 있고 비를 부르는 동남풍도 불고 있지만 가뭄 중이라 어쩔지 모르겠으며 우려 속 기대를 표하였는데,⁴⁵⁾ 이튿날 실제로 바라고 기다리던 비가

45) “바깥에서 떠드레하는 바람에 일어나 드르니 부락부녀회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다. …… 기상대 발표에 희소식인 오늘 저녁에 비가 나릴 것이라고 하니 푸근히 나리어 모마

왔다.⁴⁶⁾ 가뭄에 동네 대청소를 벌인 고잔리 여성들은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을까?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고 그들이 생각했을까? 비만 온다면, 민속이든 과학이든,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흥미로운 것은 일기 속에서 바람을 통해 비와 가뭄을 예견하는 민속지식의 방식과 과학적 관측에 의해 기상을 예측하는 근대 과학지식의 방식이 서로 교대하여 나타나고 있는 한다는 점이다. 가뭄 중 새벽부터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린 1967년 11월 5일의 전날 밤, 신 옹은 “금년 가을이 너무 가물어 내년 농사를 걱정이 된다. 논에는 물 한 방울 없다. …… 오늘은 동남풍이 불더니 하오부터는 기우러지는 것 같다.”고 기록했고 이 예측은 정확히 적중했다. 1962년에도 저녁에 비가 올 것이라는 관상대의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자, “말근 날씨로 서풍이 부는데 비는 올 것 같이 않다(62,6,13).”며, 도리어 다시 바람에 대한 민속지식으로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절박한 기대를 가지고 관상대의 기상예측의 결과를 지켜보다가 그것이 맞지 않을 때, 다시 민속지식에 의한 기상예측으로 되 돌아오는 양상이 70년대의 일기 곳곳에서도 관찰된다. 72년 가을에도 “날씨가 좋았으면 하나 오늘 동남풍으로 날씨는 기우러질 것 같다 (72.11.2).”고 적은 다음 날, “밤이 새이도록 부슬부슬 비가 나리었다.” 역시 가뭄이 맹위를 떨치던 78년 6월 10일, 흡족하지는 않으나 비가 왔다. 감각적으로는 여전히 “무덥지근한” 날씨였지만, 관상대에서는 더 이상 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예보가 나왔다. 이어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던 중 14일 신 옹은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동남풍이 일어 비가 나

른 대지 우에 약이 되도록 바라고 기다린다. 오늘은 종일 동남풍이 불어오긴 하겠지만 가뭄은 날이라 어이 될 것인가?(62.6.1).”

46) “기다리고 바라든 비는 전야에 제법 많이 나리었다. 비 오는 소리를 드르니 옷이 방가운지 한참이나 잠을 깨고 불을 켜놓고 앉아 있다가 다시 자리에 드렸다. …… 금반 나린 비는 곡식이다. 풀과 같이 달콤한 비다. 오턴 끝에 좀 더 왔으면. 금반 비에도 못 나가는 논이 많다(62.6.2).”

릴 것 같으나 다행하게 내려주었으면”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부터 다음 날에 걸쳐 “많은 양은 아니나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리었다(78.6.15).”

이는 흔히 말하는 혼종성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혼종적이라고 본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혼종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평택 대곡일기』에 나타난 민속지식과 근대과학 지식의 관계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저 두서없이 뒤섞인 상태를 가리킨다고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농사와 관련하여 보자면 대개는 생산과 인식이 위기에 처하여 장차 생활조차 위태롭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기존에 일상생활 영위의 기반이 되던 지식체계가 효용을 잃거나 그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될 때, 기존에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던 어떤 종류의 지식들이 (이들테면 관 뚜껑을 열고) 되살아 일어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때의 혼종성이란, 마치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에서처럼, 복수의 동력원이 병존하면서 경합하고, 설정과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것들 사이에서 갈아타기를 반복하는 양상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민속지식, 전통과학지식과 근대과학지식은 농민의 실용지식 속에서 각기의 내용상으로 보나 서로의 관계라는 면에서 보나 함께 병존, 경합하면서, 서로의 한계를 서로가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 글은 신권식 옹의 『평택 대곡일기』 중 1970년대까지의 분량을 주요 자료로 삼아, 비와 바람에 대한 농민의 민속지식이 현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또 성쇠의 길을 걸었는지 분석하려는 작업으로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현대 농민사회의 민속지식이 전통과학지식이나

근대과학지식과 일정하게 상호 중첩되는 가운데 함께 병존하고 있었고, 경향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에서도 근대과학지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곤경의 상황 속에서 되살아나고는 하였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제한적이거나 『김천 아포일기』나 다른 언어민속지 자료, 중국·일본 등의 속담, 그리고 조선시기 생산된 문헌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평택 대곡일기』에 나타난 민속지식의 존재방식이 결코 20세기 후반의 평택 고잔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요약은 생략하고, 이 글이 지니는 한계와 의의에 대해 간략히 짚음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논의는 장황하였지만 한계가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첫째로, 『평택 대곡일기』에 나타난 풍우, 특히 바람에 대한 민간적 지식체계의 전체 범위를 검토하지 못한 점이 큰 한계로 남아있다. 이 일기가 이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만큼 이 아쉬움은 큰데,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특히 조선시기 생산된 각종 농서들이 점풍(占豊), 즉 한 해의 풍흉을 점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수록하면서, 특정 시기에 부는 특정 바람이 홍수나 가뭄의 징조가 된다는 서술을 다량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이 참고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조선 후기의 점풍·점후(占候) 지식, 그리고 기존의 민속학적·인류학적 조사보고 속의 바람 인식과 『평택 대곡일기』 속의 바람의 풍향에 따른 기상예측을 본격적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이 후속연구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 작업은 다시 『평택 대곡일기』가 쓰인 현장, 그리고 신 옹 등 고잔리 농민들의 바람에 대한 민속지식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해명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단지 차이의 지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환경적·역사적·문화적 요인의 분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민속지식 자체의 작동

원리와 성쇠에 대한 서술에 치중하느라 이런 문제로까지 분석의 범위를 넓힐 수 없었다. 따라서 이렇게 일기 속 생활세계와 자연인식을 지역적 특수성의 문제로까지 끌어내려오지 못한 점은 이 글의 두 번째 커다란 한계이다. 이 글의 첫 번째 한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완책이 강구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이 두 번째 한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단서는 가지고 있으나 이를 분석할 이론과 방법의 틀을 아직 정확히 강구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관련 연구자들께서 가르침을 주시거나 혹은 직접 분석으로써 길을 보여주시기를 청하고 싶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또한 나름의 의의 역시 지닌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풍우에 대한 민간적 인식의 생성, 축적, 전승, 갱신, 쇠퇴, 재생, 혼종 등 민속지식이 현장의 삶 속에서 구성·재구성되는 과정을 생활사(lived history)의 견지에서 포착해냈다는 점이다. 그간 풍우 인식과 관련한 민속학적·인류학적 조사보고들은 주로 민속구분법의 파악에 치중하여, 언어적 현상에 대한 면접방식의 조사에 의해 언어문화(linguaculture)를 찾아내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학술적으로 중차대한 의의를 지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현실의 생활사적 계기들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힘을 얻거나 잃게 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향해 전개되지는 않는 한계가 있었던 점 역시 분명하다. 이 글은 특히 ‘우순풍조’의 관념이 동북아시아의 농업사나 생활사를 재구성하는 위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범주라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사라는 국면 속에서 이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농민들이 발전시켰던 지식체계의 운동과정을 생생한 현장 삶의 맥락에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적지 않은 의의를 지녔다고 자평하고 싶다.

둘째로는 민속지식과 전통과학지식 그리고 근대과학지식이 ‘근대성’의 맥락 위에서 어떻게 서로 엮여들고 또 활용되는지, 특히 그 혼종적인 존재방식에 대해 새로운 토론의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의의로

뽑고자 한다. 근대성의 맥락에서 지식의 존재방식을 묻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민속지식이나 전통과학지식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쇠퇴하고 근대과학지식이 득세하는 점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민속문화나 그 상위범주로서 전통문화의 영역에서 민속지식과 전통과학지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향이 있었다. 이는 결국 각 지식체계들이 때로 시대에 따라, 때로 어떤 사회계층적·지식범주적 영역에 따라 구획된 채, 별도로 독립하여 배타적으로 존재한다는 공통의 인식으로부터 배태된 쌍생아에 다름 아니다. 이 글은 지식의 존재방식을 기본적으로 혼종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혼종성의 양상을 막연히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병존, 경합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한계지점에서 상대를 대체함으로써 보완하는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혼종 근대성(hybrid modernity)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한 하나의 토론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⁴⁷⁾

마지막으로, 이 글이 위 두 가지의 의의를 지닌 것이 될 수 있었던 점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현대생활일기의 자료적 의의에 대해 강조를 해두고 싶다. 역사학자들의 생활사 연구에서 일기 자료의 활용은 더 이상 새로운 시도가 아니지만, 그 현상은 주로 조선시기의 일기에 집중되어 있다. 근대일기의 경우 일부 정치사·사회사·생활사 연구자들이 간혹 일국사(一國史) 복원을 위한 보완적 자료로서 활용하는 데에 그치고, 극히 일부에서만 ‘사회의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

47) 일견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기 참인 (것으로 인정되는) 논리들이 모순 가운데 병존하는 상황이야말로 근대성의 주요 특징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라투르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다른 모든 집합체와 마찬가지로 근대 세계는 그러한 혼합작용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근대성의 메커니즘의 묘미가 드러나는데) 근대적 헌법은 스스로 그 존재와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하이브리드들의 확장된 증식을 허용한다.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서의 연속적이고 동일한 세 번의 왕복을 통해, 근대인들은 자연이 우리를 벗어나며 사회가 우리 자신의 작품이고 신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면서도, 자연을 동원하고 사회적인 것을 객관화하며 신의 영적 현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누가 이러한 구조물에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라투르 2009: 99)?”

의 경험'을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의미 있는 것이지만, 아직 활용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일기의 경우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져, 아직 발굴된 자료의 양도 많지 않고, 사생활 보호 등 몇 가지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부담도 있는 관계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글의 작업에서도 일부 드러나듯이 그 활용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채 현장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여 자료의 잠재적 축적 역시 양질 모두에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현장에서 살아 숨을 쉬는 사람들의 삶의 논리를 파악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인류학적 현지조사(fieldwork)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역사적 파악을 추구하는 생활사 연구에서 인류학적 현지조사 자료에 버금가는 현장적·상황적 총체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생활일기라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이 글을 통해 성취된 생활사 연구의 수준은 아직 미미한 것이지만, 그 미미함 속에서나마 이 글이 생활일기를 통한 생활사 연구, 특히 근대와 현대의 그것에 접근하는 길을 향해 더 많은 연구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논문접수일: 2015년 5월 31일, 논문심사일: 2015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8일

참고문헌

김영미

- 2012 “어느 농민의 생활세계와 유신체제,” 『한국근현대사연구』 63: 275-306.
2013 “『평택 대곡일기』를 통해서 본 1960~70년대 초 농촌마을의 공론

장, 동회와 마실방,” 『한국사연구』 161: 383-416.

김재호

2011 “농업속신의 체계와 생산기술적 이해,” 『실천민속학연구』 18: 67-89.

라투르, 부르노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서울: 갈무리.

문만용

2013 “일기로 본 박정희 시대의 ‘농촌 과학화’,” 『지역사회연구』 21(1): 25-43.

문중양

2000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담론』, 서울: 집문당.

2003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과학담론, 그 연속과 단절의 역사: 기론(氣論)적 우주론 논의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6(4): 27-52.

스코트, 제임스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역, 서울: 에코리브르.

안승택

2009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 서울: 신구문화사.

2010 “장마와 매우(梅雨) 사이: 기후는 식민지 조선의 농업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한국과학사학회지』 32(2): 223-258.

안혜경

2011 “‘평택일기’를 통해 본 일생의례와 속신,” 『실천민속학연구』 18: 167-199.

왕한석

1994 “영해 지역의 언어 분화에 대한 일보고,” 『남천박갑수선생화갑기념논문집 국어학연구』, 서울: 태학사, pp.587-615.

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 서편』, 파주: 교문사.

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 경상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우하영 · 김혁 · 김민정 · 박종훈 · 안승택(역)
2015 『역주 천일록: 종이에 담은 천향(天香)』, 화성: 화성시청.
- 원보영
2009 “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 19~20세기 일기와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동명단행본, 2010, 민속원].
- 이승녕
1970 “한국어발달사(하): 어휘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대계(V): 언어·문학사(상)』,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pp. 263-321.
- 이정덕 · 소순열 · 남춘호 · 문만용 · 안승택 · 송기동 · 진양명숙 · 이성호(편)
2014 『아포일기(1): 농민 권순덕의 삶과 기록』,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정덕 · 소순열 · 남춘호 · 문만용 · 안승택 · 이성호 · 김희숙 · 김민영(편)
2014 『아포일기(2): 농민 권순덕의 삶과 기록』,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장태진
1968 “방향에 관한 풍명(風名) 어휘의 연구,” 『국어국문학』 41: 1-46.
- 조숙정
2014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 서해 어민의 문화적 지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지역문화연구소(편)
2007 『평택일기로 본 농촌생활사(I): 평택 대곡일기(1959~1973)』,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8 『평택일기로 본 농촌생활사(II): 평택 대곡일기(1974~1990)』, 수원: 경기문화재단.
- 홍순탁
1963 “‘전남방언’에 대하여,” 『어문학』 9: 58-86.

- 金錫胄, 『息庵遺稿』(《韓國文集叢刊》 145, 民族文化推進黨, 1995).
- 金天澤, 『靑丘永言』(朝鮮珍書刊行會, 1948).
- 朴世堂, 『穡經』(《農書》 1, 亞細亞文化社, 1981).
- 朴趾源, 『課農小抄』(《農書》 6, 亞細亞文化社, 1981).
- 禹夏永, 『千一錄』(比峰出版社, 1982).
- 柳重臨, 『增補山林經濟』(《農書》 3, 亞細亞文化社, 1981).
- 婁元禮, 『田家五行』(《續修四庫全書》, 975, 子部, 農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 by Nice, Richar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aroff, John and Jean Comaroff

1992 *Ethnography and the Historical Imagination*, Boulder: Westview
Press.

〈Key concepts〉: cognition of nature, folk knowledge, traditional scientific knowledge, modern scientific knowledge, practical knowledge, hybrid modernity, drought

Hybridity in Peasants' Knowledge on Rain and Wind:

A Case Study of *Pyeongtaek Daegok Diary* (1959~1979)

Ahn, Seung Taik*

This article analyzes how peasants' sense and knowledge on rain and wind worked and transformed, based on *Pyeongtaek Daegok Diary* (PD, 1959-1979). It aims to elucidate that modern peasants' folk knowledge (FK) coexisted and partially overlapped with traditional scientific knowledge (TSK) and modern scientific knowledge (MSK). While losing its vigor in the long term, FK repeatedly revived whenever the MSK reached its limits of explanation. This was the situation of intellectual hybridity, as is the case with hybrid engines, where multiple motors of power coexist, constantly competing and taking turns while in opposing but interdependent relations.

Chapter 2 looks over the process FK and TSK hybridized.

* HK Research Professor, Kyujan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is, it is revealed that some of rural peasants' knowledges in *PD* coincided with old sayings in an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that their intellectual worlds were never been fully separated from elite intellectuals' TSK at their time.

Chapter 3 inquires into the relations among FKs some of which were in another spaces and the others in another times. It reveals that disorderly wind in spring time was received as omen of yearly bad crops, and that some winds were recognized as calling rains and drafts or drying reserved water.

In Chapter 4 reconstructs ups and downs process of the FK with relation to intensifying intellectual hegemony of MSK. FK cannot be apprehended as a fixed and crystallized one but as a constantly revising process, and peasants' practical knowledge (PK) reconstruct itself crossing the borders among FK, TSK and MSK.